

Session 10 The Church's Eternal Identity as a House of Prayer **교회의 영원한 정체성, 기도의 집**

I. THE SPIRITUAL IDENTITY OF GOD'S PEOPLE AS A HOUSE OF PRAYER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체성, 기도의 집

- A. Isaiah revealed the eternal identity and destiny of God's people as being a house of prayer (Isa. 56:7). Jesus quoted Isaiah to strongly affirm the importance of this truth (Mt. 21:13).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기도의 집임을 밝혔다 (사 56:7).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심으로 이 진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확증하셨다 (마 21:13).

⁷***“For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Isa. 56:7)***

⁷ ...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 56:7)

¹³***And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Mt. 21:13)***

¹³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 (마 21:13)

- B. To function as a house of prayer means that God speaks His words to us, and those words move our hearts; we speak His words back to Him, and they move His heart. The result is God's resources being released on the earth—His power, money, wisdom, creative ideas, unity, favor, and so on. He releases His power on the earth primarily through His people worshiping and praying.

기도의 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다시 그분께 말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 그분의 능력과 재정, 지혜와 창조적인 생각, 연합, 은혜 등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능력을 부으시는 주요 통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분의 백성이다.

- C. When God calls us by a specific name, it indicates how we are to function in the Holy Spirit. Our greatest place of identity, authority, honor, and dignity is found in prayer—in our deep interaction and partnership with Jesus. This is how God's people are to function now and in the age to come.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실 때, 이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과 권세, 고귀함과 존엄성은 기도, 즉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와 동역의 자리인 기도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와 다가올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D. The “house of prayer” in a city is the whole Body of Christ in that city or region. It is not just the prayer ministries in that city. I describe IHOPKC as a ministry that throws a small “cup of gas” on the prayer fires that are burning in the whole house of prayer in Kansas City, which is the entire Body of Christ in the city, consisting of more than one thousand congregations.

어떤 도시의 “기도의 집”은 그 도시나 지역에 있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이는 그 도시에 있는 기도를 위한 사역만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IHOPKC 를 표현할 때, 천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캔사스의 전체 기도의 집, 즉 이 도시의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서 불타고 있는 기도의 불에 던져지는 작은 “휘발유 컵”으로 묘사한다.

II. THE CENTRALITY OF WORSHIP AND INTERCESSION IN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예배와 중보의 중심적인 역할

- A. Prayer and worship have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God's purpose. They are among the few things that we do both now and forever. Notice how central they are to God's government—He established 24/7 prayer in His royal court, where He reigns on His sovereign throne (Rev. 4:8).

기도와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왔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도 하지만 영원하게 하게 되는 몇 가지 안 되는 일들 중 두 가지이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자신의 왕의 궁정에 24/7 기도를 세워두셨다 (계 4:8).

- B. Human history began in a “praying meeting” in Eden, where Adam walked with God (Gen. 3:8).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덴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창 3:8).

- C. Israel as a nation began at a “prayer meeting” at Mount Sinai, which was ablaze with God's fire. At that time God called His people to be a kingdom of priests (Ex. 19:6-20). The first assignment He gave Israel was to build a worship sanctuary, a house of prayer, in the wilderness (Ex. 25).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시내산 “기도회”에서였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다 (출 19:6-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 광야에 예배의 성소, 기도의 집을 짓는 것이었다 (출 25 장).

- D. God's purpose for His people to be a “house of prayer” can be seen clearly in the reign of David. David established worship in the house of God, led by singers and musicians (1 Chr. 15-16) who “were free from other duties; for they were employed in that work day and night” (1 Chr. 9:33). David financed more than four thousand full-time, paid musicians and singers (1 Chr. 23:5; 25:7).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신 목적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이끄는 예배를 세웠다 (대상 15-16 장). 이들은 “주야로 자신의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들은 할 필요가 없었다” (대상 9:33). 다윗은 4,000 명이 넘는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재정을 공급했다 (대상 23:5; 25:7).

- E. David commanded the kings of Israel in the generations after him to maintain worship in the house of the Lord in the way that God had revealed to him. Each time the Davidic order of worship was reestablished in Israel, a spiritual breakthrough with a military victory soon followed.

다윗은 자신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대로 주의 집에서 예배를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 명한 예배가 다시 세워질 때마다, 영적인 돌파와 함께 군사적인 승리가 곧 뒤따랐다.

²⁵*He [Hezekiah] stationed the Levites in the house of the LORD with cymbals...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David...for thus was the commandment of the LORD. (2 Chr. 29:25)*

²⁵ 왕[히스기야]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대하 29:25)

- F. Jesus Himself began His public ministry in a “prayer meeting” in the wilderness (Mt. 4) and ended it in a prayer meet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Mt. 26). Jesus personally spent long hours in prayer (Mk. 1:35; 6:46; Lk. 5:16; 6:12; 9:18, 28; 21:37). He emphasized prayer, or “watching,” more than any other specific activity when speaking about the generation in which He would return (Mt. 24:42-43; 25:13; Mk. 13:9, 33-38; Lk. 12:38-39; 21:36).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광야의 “기도회”에서 시작하셨으며 (마 4 장),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에서 마치셨다 (마 26 장).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다 (막 1:35; 6:46; 눅 5:16; 6:12; 9:18, 28; 21:37). 그분은 주의 재림의 세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기도, 혹은 “깨어 있음”을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강조하셨다 (마 24:42-43; 25:13; 막 13:9, 33-38; 눅 12:38-39; 21:36).

- G. The Church began in a prayer meeting in the upper room as Jesus’ followers waited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the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Acts 1:4, 14).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린 기도회에서 시작되었다 (행 1:4, 14).

¹⁴*These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Acts 1:14)*

¹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 H. Prayer was a high priority among the leaders in the New Testament (Acts 1:14, 24; 2:42; 3:1; 4:31; 6:4; 9:11; 10:2-4, 9, 30-31; 11:5; 12:5, 12; 13:3; 14:23; 16:16, 25; Rom. 8:26; 10:1; 12:12; 1 Cor. 7:5; 2 Cor. 1:11; 9:14; 13:7-9; Eph. 1:17-19; 3:14-20; 6:18; Phil. 1:4, 9-11; 4:6; Col. 1:3, 9-11; 4:2-3; 1 Thes. 3:10; 5:17, 25; 2 Thes. 1:11; 3:1; 1 Tim. 2:8; 4:5; Heb. 13:18; Jas. 5:13-18; Jude 20).

기도는 신약의 리더십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었다 (행 1:14, 24; 2:42; 3:1; 4:31; 6:4; 9:11; 10:2-4, 9, 30-31; 11:5; 12:5, 12; 13:3; 14:23; 16:16, 25; 롬 8:26; 10:1; 12:12; 고전 7:5; 고후 1:11; 9:14; 13:7-9; 엡 1:17-19; 3:14-20; 6:18; 빌 1:4, 9-11; 4:6; 골 1:3, 9-11; 4:2-3; 살전 3:10; 5:17, 25; 살후 1:11; 3:1; 딤후 2:8; 4:5; 히 13:18; 약 5:13-18; 유 20).

⁴²*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fellowship...and in prayers. (Acts 2:42)*

⁴²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⁴²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한글 KJV, 행 2:42)

- I. The apostles were very committed to their prayer lives (Acts 6:4). Paul embraced night-and-day prayer in various seasons and called widows to this ministry (1 Thes. 3:10; 1 Tim. 5:5; 2 Tim. 1:3).

사도들은 삶에서 기도에 매우 헌신되어 있었다 (행 6:4). 바울은 삶의 다양한 시련에 주야 기도를 행했으며, 이 사역에 과부들을 초청했다 (살전 3:10; 딤후 5:5; 딤후 1:3).

⁴***“But we will give ourselves continually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Acts 6:4)***

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행 6:4)

- J. The Lord has led many throughout the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to establish night-and-day prayer ministries. Ministries from all parts of the Body of Christ—Celtic, Orthodox, Catholic, and Protestant—have mobilized 24/7 prayer ministries; see *Growing in Prayer* (chapter 27).

주님은 교회사의 2,000 년 동안 많은 이들을 밤낮으로 기도하는 주야 기도 사역으로 이끄셨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들은 (켈틱,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24/7 기도 사역들을 동원해왔다; 기도의 성장 27 장을 참고.

- K. There are many new prayer ministries today—see *Growing in Prayer* (chapter 28) for examples of how the Holy Spirit has raised up thousands of new prayer ministries in these days.

오늘날 많은 새로운 기도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께서 어떻게 수천 개의 새로운 기도 사역들을 일으켜 오셨는지의 많은 예는 “기도의 성장” 28 장에서 볼 수 있다.

- L. Before Jesus returns, the Spirit will raise up the greatest prayer movement in history. There are indicators of this in the prophetic scriptures (Ps. 96:1, 9, 13; 98:1-9; 102:15-22; 122:6; 149:6-9; Isa. 19:20-22; 24:14-16, 23; 25:9; 26:1, 8-9; 27:2-5, 13; 30:18-19, 29, 32; 35:2, 10; 42:10-15; 43:26; 51:11; 52:8; 62:6-7; Jer. 31:7; 51:8; Joel 2:12-17, 32; Zeph. 2:1-3; Zech. 8:20-23; 10:1; 12:10; 13:9; Mt. 21:13; 25:1-13; Lk. 18:7-8; Rev. 5:8; 6:9-11; 8:3-5; 9:13; 14:18; 16:7; 18:6; 22:17).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성령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언이 기록된 구절들은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시 96:1, 9, 13; 98:1-9; 102:15-22; 122:6; 149:6-9; 사 19:20-22; 24:14-16, 23; 25:9; 26:1, 8-9; 27:2-5, 13; 30:18-19, 29, 32; 35:2, 10; 42:10-15; 43:26; 51:11; 52:8; 62:6-7; 렘 31:7; 51:8; 욥 2:12-17, 32; 습 2:1-3; 습 8:20-23; 10:1; 12:10; 13:9; 마 21:13; 25:1-13; 눅 18:7-8; 계 5:8; 6:9-11; 8:3-5; 9:13; 14:18; 16:7; 18:6; 22:17).

- M. Natural history will end in the context of a global prayer movement. The conflict at the end of the age will be between two global worship movements—one led by Jesus, which will prevail over the Antichrist's state-financed worship movement (Rev. 13:4, 8, 12, 15).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전 지구적인 기도 운동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2 개의 전 지구적인 예배 운동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이는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이고 정부가 지원을 받는 경배 운동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계 13:4, 8, 12, 15).

⁸***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Rev. 13:8)***

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 N. In the Millennium, all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e saved, worship Jesus, and base their national governments on the Scripture (Ps. 72:11; 102:15; 138:4; 148:11; Isa. 62:2; Rev. 21:24).

천년 왕국 때에 모든 땅의 왕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국가 통치의 근간을 말씀에 두게 될 것이다 (시 72:11; 102:15; 138:4; 148:11; 사 62:2; 계 21:24).

¹¹ *Yes, all kings shall fall down before Him; all nations shall serve Him. (Ps. 72:11)*

¹¹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 72:11)

¹⁵ *So the nations shall fear the name of the LORD, and all the kings of the earth Your glory. (Ps. 102:15)*

¹⁵ 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시 102:15)

III. THE VOW THAT CHANGED HISTORY (PS. 132)

역사를 바꾼 서원 (시 132 편)

- A. Psalm 132 records a vow of King David that is at the heart of the end-time missions and prayer movement. I call it “the vow that changed history,” because dedicated believers throughout the ages have embraced the spirit of David’s vow and set their hearts to live by it. The vow is a commitment to be wholehearted in seeking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and release of His presence.

시편 132 편은 마지막 때 선교와 기도 운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다윗 왕의 서원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를 “역사를 바꾼 서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시대를 통해 헌신된 성도들이 다윗이 서원했던 마음의 품고, 이를 기반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기 위해 전심을 다할 것을 헌신하는 서원이다.

²...*how he [David] swore to the LORD, and vowed ...*³“*Surely I will not go...up to the comfort of my bed;* ⁴*I will not give sleep to my eyes or slumber to my eyelids,* ⁵*until I find a place for the LORD, a dwelling place for the Mighty One*”...⁸*Arise, O LORD, to Your resting place.*”
(Ps. 132:2-8)

² 그[다윗]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³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 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⁵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한글 KJV: 하나님의 처소]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 ⁸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한글 KJV: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시 132:2-8)

- B. In principle, a “dwelling place” speaks of a place (a city or region) where God’s purpose is done to the fullest measure ordained by God in any given generation, and where His presence is manifested on earth in a way that is discernible, even to unbelievers.

대체로,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에 대해 계획하신 그분의 목적이 충만한 분량으로 성취되는 장소를 말하며, 불신자들조차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나는 장소를 말한다.

- C. David vowed to live in extravagant commitment to the Lord by seeking to establish a place where God’s presence would be honored and fully responded to. This was a higher priority to him than building his own house—his own comfort, family, ministry, calling, and finances. David’s “house” refers to his domestic life and personal resources. His “bed” refers to his personal comfort and ease.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히 여겨지며 이에 대해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우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서원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집(자신의 편안함, 가족, 사역, 부르심, 재정)을 짓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 순위의 일이었다. 본문에서의 다윗의 “집”은 다윗 자신의 가정의 삶과 개인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말한다. 그의 “침상”은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말한다.

- D. David's vow included establishing day-and-night worship by setting singers and musicians in place to join him in contending for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in their generation.

다윗의 서원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자신과 함께 세워서 주야로 드러지는 예배를 세움으로, 그들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충만함이 부여되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 E. The Church is the dwelling place of God today in a spiritual sense, and we can contend for a much greater release of God's presence through the worldwide Body of Christ. When people speak of seeking “a dwelling place for God,” they are often referring to a place where, in principle, God's manifest presence is released in an unusual wa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resulting in the commitment of many to love and obey God with all their hearts, liv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pirit, and together experience an unusual measure of His manifest presence on a regular basis.

교회는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위대하게 부여되는 것을 위해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함께 싸워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할 때, 대체로 사람들은 종종 어떤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긴 시간 동안 특별하게 부여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리더십 아래 살기로 결정하며, 특별하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함께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장소에 대해 말한다.

- F. Remaining faithful to his vow was costly and brought reproach upon David. He described what he endured from his youth related both to his zeal for God's house and the way he lived because of it.

다윗이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는 희생이 따랐고, 그에게는 비방이 따랐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그리고 이로 인해 그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견뎌온 것을 기록했다.

⁷Because for Your sake I have borne reproach...⁸I have become a stranger to my brothers...⁹Because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and the reproaches of those who reproach You have fallen on me.¹⁰When I wept and chastened my soul with fasting, that became my reproach.¹¹I also made sackcloth my garment; I became a byword to them. (Ps. 69:7-11)

⁷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⁸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⁹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¹⁰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¹¹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 거리가 되었나이다 (시 69:7-11)

- G. David was mocked because he boldly stood for what God was zealous for in his generation. He bore reproach for his zeal in fasting that God's house would one day be filled with glory (v. 10). He became a byword to his family and friends (v. 11). Some sincere believers draw back from zealously seeking God out of fear of receiving criticism from others.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대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담대하게 지지한 것으로 인해 조롱을 당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이 어느 때인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위해 금식하는 열심을 가진 것을 비방을 당했다 (10 절).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 거리가 되었다 (11 절). 어떤 신실한 성도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추구해나가는 것을 그만두기도 한다.

H. Find out what God is doing in your generation and fully throw yourself into it.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아내고, 이 일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던지라.

³⁵“*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his own generation by the will of God, fell asleep.*” (Acts 13:36).

³⁶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행 13:36)

IV. RESPONDING TO THE GROWING CRISIS IN THE WORLD

세계에 증가하는 위기에 대한 반응

A. The church in the West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The nations are increasing in lawlessness and moral confusion and engaging in escalating conflicts, including those inspired by racism, terrorism, and sexual immorality. They want to remove the influence of God's Word from society, because they see His ways as bonds and cords that enslave them (Ps. 2:3). David described Jesus responding to the crisis by praying, or *asking the Father*, for His rightful inheritance in the nations (Ps. 2:8).

서구 교회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열방에는 불법과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서로 간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종차별주의, 테러리즘, 성적인 음행 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사회로부터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그들을 노예처럼 묶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2:3). 다윗은 이 위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분의 합당한 유업을 구하는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 즉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을 기록했다 (시 2:8).

¹*Why do the nations rage...? ²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³“Let us break Their bonds in pieces and cast away Their cords from us.”... ⁷“The LORD [the Father] has said to Me [Jesus], ‘...⁸Ask of Me, and I will give You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Ps. 2:1-8)*

¹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 ²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³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 ⁷ 내가 여호와[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1-8)

B. The book of Joel gives insight into the response that God desires from us in the growing crisis. The good news is that the crisis can be delayed, minimized, or sometimes averted when we respond to God in the way He desires; He will pour out His Spirit to release a greater measure of His activity. Joel told the leaders to blow the trumpet and call a sacred assembly, to turn to God with all their heart, repent of their sin, and cry out for God's mercy and a greater measure of the Spirit's power.

요엘서는 증가하는 위기 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드리며 나올 때, 이 위기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혹은 돌이켜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며 자신의 일하심을 더 위대하게 부으실 것이다. 요엘은 지도자들에게 나팔을 불며, 성회를 소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부르짖고, 더 큰 성령님의 권능이 부어지길 구하라고 말했다.

¹²“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with fasting...and with mourning.” ¹³...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and He relents from doing harm. ¹⁴Who knows if He will turn and relent, and leave a blessing behind Him...? ¹⁵Blow the trumpet in Zion,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²⁸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Joel 2:12-15, 28)

¹²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¹³ ...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¹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¹⁵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 ²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 (요 2:12-15, 28)

- C. The response God is looking for in a national crisis is for His people to turn to Him with all their hearts and repent for compromise in their life. Joel summoned the people to return to the Lord with confidence, knowing that He desires to respond in a way that is merciful and filled with kindness.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분께 전심으로 돌아와 그들이 삶에서 저질렀던 타협을 회개하는 것이다. 요엘은 백성들이 주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그분이 자비롭고 인자함이 가득한 방법으로 응답하길 원하심을 알고 돌아올 것을 불렀다.

¹⁸Who is a God like You, pardoning iniquity...because He delights in mercy. (Mic. 7:18)

¹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 7:18)

- D. **God relents:** The Lord desires to relent and leave a blessing behind (2:14). He is willing to transform a disaster zone into a revival center of blessing, to make a way of deliverance and bring restoration, if His people will cry out to Him in a loyal relationship of love. By turning to God, we bring His power, wisdom, and blessing into the crisis. When there is no human remedy, the Lord can still release blessing to heal and restore a person, a family, business, church, city, or nation.

하나님께서서는 돌이키신다: 주님은 재앙을 내리는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 뒤에 축복을 남기길 원하신다 (2:14).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충성된 사랑으로 부르짖을 때, 재난이 임한 장소를 축복이 임한 부흥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고 회복을 가져오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이 재난 한 가운데에 그분의 권능과 지혜,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 아무런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각 개인과 가정, 사업과 교회, 국가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축복을 부을 수 있는 분이다.

¹⁴“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heal their land.” (2 Chr. 7:14)

¹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 E. **Blow the trumpet:** God's people are to "blow the trumpet" (2:15) in time of crisis—that is, to boldly proclaim the necessity of a sacred assembly by speaking of the coming restoration that is available in times of crisis and judgment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난의 때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 (2:15). 이는 재난과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임할 수 있는 회복에 대해 말하며 성회로 모일 필요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 F. **Sacred assembly:** This is a time set aside for the people of God to gather in corporate prayer with fasting and turn to the Lord in repentance for all the compromise in their lives. Fasting and prayer are expressions of our wholeheartedness. Fasting positions us to receive more from God, enhances our ability to give ourselves to God, and deepens our heart-connect with God's heart.

성회: 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함께 모여, 금식하며 연합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삶에 있던 모든 타협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표현이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해주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